

# 「까미유 끌로델」의 리얼리즘 내러티브의 진실성

## The realism of Camille Claudel Authenticity in Narrative

차 영 선  
아주대학교

Cha, Young-Sun  
Ajou University

### 요약

21세기 포스터모더니즘 트렌드는 실존 인물인 예술가의 삶과 예술품을 다루면서, 회화, 조각, 스케치, 음향, 조각소리 등, 복합적인 콘텐츠 융합의 시청각 효과로 스토리의 시너지 효과를 낸다. 그럼으로써 내러티브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빙성 있는 탄탄한 증거자료 수집이 영화의 진실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I. 서론

「까미유 끌로델」(1988)은 브뤼노 누탕 Bruno Nuytten (1945-)이 처음으로 감독을 맡은 영화이다. 까미유 (1864-1943)의 전 생애를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로망을 만나는 촉망받는 조각가(20세)에서 마지막 여생을 마칠 때까지 연대기적 구성으로 집중해서 다룬다<sup>1)</sup>. 당초 영화는 나중에 나올 뮤지컬(2003)처럼 현재의 결말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과거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상 형태를 취하려고 했다가, 연대순의 시간개념을 순차적으로 따르면서 ‘속도감 있는 연출법’의 기계적인 리듬을 타고 있다. 작품의 착상부터 제작까지의 과정 중 각각의 조각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면서 매순간 색다른 모습으로 연출되는 회비가 엇갈리는 주인공의 기복 있는 미묘한 감정을 밀도 있게 그려낼 때 이에 카메라를 집중 들여대는 전기 영화이다. 영화가 까미유의 삶과 작품의 사실성 복원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관점에서 서사의 근거 자료 출처를 계보적으로 추적하면 다음과 같다.

## II. 내러티브의 진실성

### 1. 자료수집

최대한 사실성을 복구하려는 선행 작업으로, 우선 남동생 폴 끌로델(1868-1955)은 그가 생존 시 경매에 나온 까미유의 조각 작품 전체를 사들이며 컬렉션 구성에 열정을 보인다. 또 전국적으로 공모하여 누나의 작품을 되찾으면서 오늘날까지 존존하는데 크게 공헌한다. 까미유의 삶을 소재로 한 그의 문학작품들과 같은 선행 사료들이 영화의 사실성 복구에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폴 클로델의 『황금머리』). 또, 19세기 사진 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해온 전자 영상매체의 부상으로 까미유의 사진과 가

족들 및 지인들의 사진이 그대로 보존되었고, 까미유와 가족의 일기, 그녀와 가족 및 지인들 간에 주고받은 편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 자료가 자크 까사르의 압도적인 연구로 입수되면서 그녀의 삶 전체를 크게 뒷받침한다<sup>2)</sup>. 연이어 안느 달베라는 여류작가에 의한 까미유의 자서전이 나왔고, 까미유의 남동생, 폴 끌로델의 손녀인 레네 마리 파리의 열정적인 자료 수집과 철저한 조사 작업이 여류 조각가의 삶을 투명하게 한다<sup>3)</sup>. 최근 발간된, 『까미유와 폴 클로델의 위대한 열정』 또한, “폴 클로델의 딸이자 까미유의 조카인 르네 끌로델 낭테, 폴의 손녀인 마리 빅투아르 낭테, 종손녀 렌 마리 파리와 종손 프랑수아 마사리 등 유족들과의 인터뷰와 꼼꼼한 자료 조사를 통해 까미유 끌로델과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바로잡고, 그녀의 삶과 사랑에 관한 몇 가지 뜻밖의 사실들을 들려줌으로써, 역사적 사료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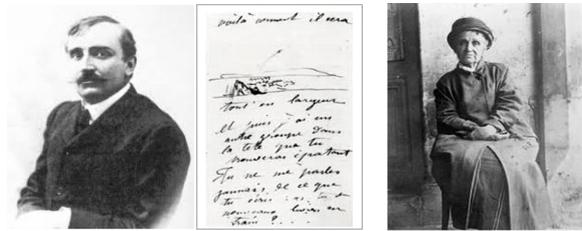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당대 기자, 관객들이 남긴 기사와 논평 및 소감, 그리고 의사 진료 의견서들, 등은 그녀에 관한 진실된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가를 입증한다. 기자들의 기사나 비평가·관객들의 증언들은, 현장에서 직접 경험·관찰한 사람들의 다층적이고 다양한 진실들을 들려주고 있다. 그러므로 영화를 접하는 오늘날의 관객 또한 영상콘텐츠를 통해 재현되는 까미유 주변인들의 증언들을 영화 대화를 통해 경청함으로써 그 배면에 숨겨진 진실을 다시금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 2. 내레이션과 디스플레이 화면구성

영화의 구성은 증언이외에 특히 친밀한 사람에게 쓰인 편지나 일기로서 그녀에 관한 사적 정보를 담고 있는 은밀하면서도 진실한 내용들을 많이 연출해낸다. 소설(Hugo, Paul Claudel(『황금머리』)과 시 감독, 의사진단

서, 등 또한 내레이션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되는데, 이는 감정을 시적으로 전달하면서 열거되는 사건들보다 더 영화의 사실성을 더해준다.

그러므로 하나의 시퀀스에 담긴 내레이션과 증언들은 이 영화에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주요한 역할로서 영상은 여기에 일치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가장 적합한 장면들로 대체하면서 예를 들어 중국에서 날아온 폴의 편지와 사진, 까미유의 조각전시회에 관한 오픈된 스크랩노트 (Camille, Petits expositions)의 클로즈업한 장면, 또는 폴에게 보내는 까미유 편지가 내레이션 되면서 그녀의 말년 실물 사진이 제시되기도 한다.



시각적 이미지로서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당시 시대나 사회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세기말의 전형적인 파리의 풍속이나 낭만주의 시대의 예술가의 삶이 극명하게 재현된 점이다. 그래서 마치 '인상파의 그림이 그대로 움직이듯 아틀리에의 풍경이나 전람회, 파리의 정경, 빌레브의 시골풍경, 창문을 통해 보이는 운치 있는 영상 화면설정으로 스크린 장식을 하면서 19세기 당대의 분위기에 젖어들게 한다. 화면구성에 있어서도 회화적인 표현방식을 활용하면서 배경화면 자체를 미술 화하여, 영화와 미술의 관계 역시 그 시대의 예술 트렌드인 낭만주의를 중심으로 풀어낸다. 이런 관점에서 당시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영화는 전통적인 시각예술인 미술과 스케치로부터 발상을 빌려와서 로댕이 직접 대생한 까미유의 이미지들 전체를 유리창을 통해 감상하도록 한다. 스케치의 상징들이 영화 속 주제 전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면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영화에 직접적인 형상화 작용을 하는 회화 또한 서사의 은유적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당시 오케스트라연주와 함께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는 뒷배경 화면의 풍습도는 당시 낭만주의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등장하는 주인공들과 융합되어 스크린 구성 자체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그림 1). 박람회 때 까미유의 작품 「중년」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까미유와 시장 모라르크와의 대화 장면이 나올 때 거세게 '물결치는 파도 그림' (그림 2)이 나오는 스크린 뒷배경 장식은 까미유의 격렬하고 음울하며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처럼 스크린의 배경화면으로 회화와 융합된 등장인물들이 등장할 뿐 아니라 까미유의 심적 고통을 암시하는 갈바리아 예수의 붉은 십자가의 회화들이 단독

적으로 연이어서 화면을 스쳐지나갈 때 영화와 회화간의 '필연적인 만남'을 시사해준다.



그림 1. 배경 화면인 풍습도 그림 2. 배경: 물결 파도

화폭의 그림을 영상스크린에 담은 화면구성뿐 아니라, 19세기 분위기를 좀 더 명료화하려는 상징성을 나타내려고 물 끓는 주전자, 빠꾸기시계, 시골에서 퍼 올리는 펌프물, 양산, 운송수단인 쌍 마차와 황소수레, 등과 같은 당시 시대성을 실감케 하는 고증 품들이 등장함도 간과할 수 없다. 뿌연 연기를 내뿜으며 기적을 올리는 19세기 산업혁명의 표징인, 와트의 증기기관차의 등장과 에펠탑의 건설 초기의 모습, 그리고 19세기를 대변하는 사상이 위고의 장례식을 알리는 종소리 역시 관객으로 하여금 당대 분위기를 충분히 실감하게 한다. '눈으로 본다'고만 생각하는 영상을 귀로 들으면서 시종일관 시각과 청각이라는 감각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주는 과정을 보여준다. 단적인 예로 센느 강이 범람한 까미유의 지하방에서 들리는, 출렁거리는 음산한 물소리 같은 청각의 확대는 주인공의 심리를 더할 나위 없이 표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비극적 영화의 소용돌이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한다.

내레이션을 비롯하여, 크게 확대·강조되는 청각과 시각의 융합으로 공감각의 새로운 예술세계를 개척하는 「까미유 끌로델」의 스크린 세계는, 당시 시대상의 철저한 고증으로 정교하게 꾸며지면서 영화의 내용에 역사적인 리얼리티를 한층 더해 준다. 즉, 당시의 공간을 재현하면서 상상 속의 세계를 스크린에 그대로 옮겨놓음으로써 과거의 인물인 로댕과 까미유의 사실성을 되살리고 있다.

## ■ 참고 문헌 ■

- [1] Bruno Nuytten, Camille Claudel, 175분, Produced by I. Adjani and C. Fechner, 1988.
- [2] Jaques Cassar, Dossier Camille Claudel, pp.123, Paris: Séguier, 1987.
- [3] Reine-Marie Paris, Camille Claudel (1864-1943), pp.383, Paris: Gallimard, 1984.
- [4] Dominique Bona, Camille et Paul : La passion claudel, pp. 442, Paris: Parution, 2008.